

# 아직도 출판계 주변을 맴도는 일제 용어들

## 인쇄·제판 등 출판 전분야에 걸쳐... 국적 불명의 말까지 등장

해방 50년. 짧지 않은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그 세월이 무색하게 아직까지 일제의 잔재는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린다. 우리들 입에서 무심히 튀어나오는 일본말, 거기에 뿌리를 둔 국적불명의 용어가 바로 그 증거다. 출판·인쇄업계의 용어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인쇄 제판 제본 등 출판 전분야에 걸쳐서 일본말은 지금도 표준어처럼 쓰인다. 그래서 일본어로 된 출판용어를 모르면 아예 '왕초보' 출판인으로 분류되기에 딱 맞다. 여기에 한글세대가 진출하면서 이러한 용어 때문에의 사전달도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 일본말을 아무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현실

"직원들이 인쇄소에만 갔다 오면 완전히 바보가 돼서 와요. 도대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본말을 마구 쓰니까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적반하장으로 그 용어를 모르는 우리 직원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본다고 합니다. 마치 '너 출판밥 먹은 지 얼마나 됐냐'는 식이라고 합니다."

출판 인쇄계의 무분별한 일본용어 사용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는 하지만 정작 그 개선의 여지는 아직 기대 이하이다. 제타 디자인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중규씨도 그 심각성을 고발한다.

"디자인 업계에 종사한 지 꽤 됐는데도 인쇄소나 제판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이 어떤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대중 관행상 그런 뜻이었구나 짐작만 할 뿐이다."

반평생을 출판사에 몸담고 있는 출판사 대표의 말이나 이중규씨의 말에는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지만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시라' '도비라' '하리꼬미' 등의 일본말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는 출판의 현실만 돌아봐도 그들의 말을 쉽게 수긍할 수 있다.

출판계 주변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인쇄출판용어 순화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70년대 중반의 일이다. 출판인쇄용어 순화의 결과물로는 우선 문교부가 발행한 공업고등학교 인쇄교과서가 있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엮은 《과학기술용어집》이 1976년 7월에 나온 바 있다. 인쇄교과서는 1976년 《인쇄문화시보》에 '인쇄기술용어 시안 및 해설'을 연재한 박도

### 인쇄 제판 제본 등 출판 전분야에

걸쳐서 일본말은 지금도 표준어처럼

쓰인다. 그런 용어를 모르면 아예

'초보자'로 무시당하기 일쑤다.

일본말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말로

착각하고 쓰는 용어도 적지 않다.

또 영어로 교육받은 지금의 세대들은

영어를 즐겨 사용함으로써

출판계 용어는 실로 '비벨탑'의

언어처럼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다.

영씨가, 《과학기술용어집》은 박기연·김종완씨 두 사람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었다.

이밖에 개인적인 용어순화 작업도 적지 않았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서수옥씨(전 을유문화사 상무이사)다. 서씨는 79년 3월 이래 3년에 걸쳐 《출판문화》에 '출판·인쇄용어'를 3년동안 연재, 출판·인쇄계의 용어순화에 작지 않은 공헌을 했다. 서씨는 83년 1월에 《편집·인쇄용어와 해설》(범우사)을 펴낸 바 있는데, 이 사전은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은 사건이었지 어떤 심의기구의 중지를 모은 것은 아니다. 즉 현행 맞춤법처럼 어떤 규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서수옥씨도 《편집·인쇄 용어와 해설》 서문에서 "이 책이 장차 우리말 용어가 확정 정착되는데 하나의 시안 구실을 할 수 있으면 망외(望外)의 영광이겠다"고 고백하고 있다.

### 용어순화에 대한 노력에도 한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장에서는 일본어가 난무하고, 우리말로 된 용어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용어순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장이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던 것이다. 책 만드는 일에 어떤 말을 사용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업계 종사자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그후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과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이 국어순화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쓰는 용어를 수집하고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 1984년. 두 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이 작업은 서수옥씨를 중심으로 연구진



우리말로 순화 확정된 용어를 교육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인쇄소 현장.

을 구성하고, 1986년 6월에 1384단어를 우리말로 제정했다. 이 사업에 참가한 연구진들은 기왕에 발행된 문교부의 교과서와 《과학기술용어집》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출간된 출판·인쇄 관계서적 7~8종에서 사용된 용어를 모두 뽑아 서로 대조·비교할 수 있도록 일람표를 만들어 기본자료로 삼았다. 관련분야의 용어까지를 대상으로 수집한 용어는 5천단어가 넘는 방대한 것이었는데, 당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을 골자로 우리말을 적고 뜻을 풀이하는 것으로 예비작업은 일단락됐다.

예비작업에서 걸러진 용어들은 인쇄업계와 학계의 심의를 거쳐 복수의견을 붙여 문교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당시 예비심의를 한 사람들은 오민근(평화당인쇄 전무이사), 이규용(중앙전자 부사장), 홍우동(신흥인쇄 부사장), 윤태배(한국인쇄기기제작소 대표), 이승구(대한교과서 상무이사), 박도영(서울기계공고 인쇄과장), 한승희(서울북공고 인쇄과장), 전영표(신구전문대학 인쇄과 교수)씨 등이다. 사전심의를 거친 용어를 정부는 국어연구소 내의 국어순화위원회에 회부, 심의케 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제정된 용어들은 《인쇄용어》라는 팜플렛 형식의 책자로 발간되어 인쇄·출판계에 배포되기에 이른다. 이후 《인쇄용어》는 인쇄·출판 용어집이나 사전에서 모범으로 쓰여졌다.

《인쇄용어》 예비심의를 담당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당시의 인쇄·출판용어가 조잡하고 일본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됐다고 회고한다. 서울기계공고 인쇄과장에 재직하면서 이 작업에 참여했던 박도영씨는 "아무리 우리 용어를 가르치려고 해도 학교에서의 교육은 한계가

있다"고 털어놓는다.

### 교육내용과 거리가 먼 현장용어

현재 서울공고 인쇄과 조교로 있는 경소진씨는 3학년 2학기 실습기를 잊지 못한다. 경씨는 고등학교에서의 교육내용으로 현장의 업무를 전부 알지는 못한다는 사실쯤은 알고 현장근무에 나섰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용어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아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가 처음 당황한 것은 현장의 선배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내 동기들도 현장용어를 못 알아들어 꽤나 고생했다. 학교에서 배운 원칙을 무시하고 다시 배워야 한다는 자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지금도 일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일본어도 아니고 우리말로 아닌 국적 불명의 용어로 변해서 사용되고 있다."

경소진씨가 말하는 일본용어는 인쇄·출판 업계에서 어렵지 않게 대할 수 있다. 제본의 한 공정만 봐도 그렇다. 실로 매는 실매기는 이토토지, 철사로 매는 철사매기는 하리가네 토지, 순전히 풀(접착제)로만 매는 풀매기는 무선토지라는 말로 통한다.

'돈보(혹은 돔보)'라는 말도 그렇다. 우리 말로는 가늠표, 맞춤표, 영어로는 레지스터를 일컫는 이 말은 그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통한다. 원래 '돈보'라는 일본말은 잠자리라는 뜻. 단순히 색을 맞추기 위해 표시하는 십자를 잠자리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저 돈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일본말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말로 착각하고 쓰는 용어도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말

출판과정에 흔히 쓰이는 일제용어

분 류	일제 용어	우리말 용어	뜻 풀 이
활자	구쿠리 후고 구로마루	묶음표 괄호 검정-동그라미	표제 또는 문장 첫머리에 붙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쓰인다. 가운데 점보다는 큰 것. 2종 이상의 활자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버리고 필요한 부분을 합쳐서 특수한 한자를 합성하는 것. 고딕체 문자의 획 끝을 모가 나지 않고 동그스름하게 한것. 구문활자 서체의 분류의 하나로 제목으로 쓰이는 서체.
	사쿠지	쪽자	
	마루고딕 미다시 요소타이	둥근-고딕 제목-세체	
편집 및 교정	오미다시	큰 제목	주의를 끌기 위해, 첫머리에 넣는 대형문자 또는 고딕체로 짠 표제. ① 문자나 행을 다음 행이나 다음 면으로 넘겨 보내는 것. ② 사식문자의 간격을 띄기 위해 인자(印字)위치를 이동시키는 것. 활자조판의 교정쇄. 아직 교정을 보지 않은 상태의 것. 인쇄물로 할 사진이나 선화원고의 치수가 원고와 동일한 것. 서적의 표제·저자명·출판사명 따위를 넣은 페이지 표판에서 제목을 넣기 위한 사진 책 안에 표제가 들 이상 있을 경우 제각기의 부분에 붙이는 표제지. 일반적으로 편명, 장명 등을 넣는다. 연감 같은 데서는 색지를 넣는 경우도 있다. 표제지 앞에 앞 표제지(책명만 박은것)가 붙을 경우에 특히 보표제지라 부름. 출판물 특히 서적에 있어, 본문 앞쪽에 붙이는 표제지·머리그림·바치는글·머리말·일러두기·차례 등을 말한다. 신문 잡지에서 기사 첫머리에, 또는 책에서 본문이 구분돼 있을 때, 그 구분되는 곳에 다는 제목. 판면 치수의 설계, 문자·사진·도판의 인쇄상의 지정을 뜻한다.
	오쿠리	①넘김 ②옮김	
	게라즈리 겐슨 도비라 돗보 나카도비라	교정쇄 원치수 표제지 빗줄 속 표제지	
	혼도비라	표제지	
	마에쓰케	앞붙이	
	미다시	표제, 제목	
	와리쓰케	원고비름 원고레이아웃	
제판	시로누키	회계 빼기, 흰빼기	인쇄면에 있어 검정 또는 그밖의 색의 민인쇄나, 30% 이내의 어두운 망판인쇄 안에 문자나 그림을 회계(혹은 바탕색으로) 빼내는 것. 여러가지 색을 겹쳐 인쇄할 때, 각판의 가늌를 잡기 위해 인쇄판 4면 중앙에 교각된 눈금을 표시한 것. 사진 제판의 접촉제를 바른 투명시트 또는 유리판에 막을 벗긴 네거티브 따위를 붙이거나 혹은 필름으로 만든 네거티브 따위를, 따붙일 곳을 도려낸 마스크페이퍼에 붙이는 것.
	돗보	가늌표(맞춤표)	
	하리코미	따라붙이기 붙여놓기	
인쇄	스리혼 도바리	인쇄지 통바름	책거리에서 인쇄가 끝난 단계의 인쇄물. 즉 제본 전의 인쇄물. 인쇄할 때, 압통 등의 금속면과 판면과의 충격을 피하고 적당한 탄력을 주어 판면과 인쇄 용지와의 접촉을 좋게 하기 위한 작업. 인쇄물 교정이 끝난 다음, 납품하기 위한 인쇄. 교정인쇄에 상대해 쓰는 말.
	혼즈리	본인쇄	
제본	이토토지 오리코미	실매기 접어매넣기	제본에서 한 접장씩 실로 매는 것. 본문 페이지의 판형보다 큰 별지를, 접어서 페이지 사이에 끼워 맨 것. 본양정의 일종. 등의 모양이 등글지 않고 모가 나게 한 것. 책 읽던 곳에 끼우는 나무나 대 따위에 세공한 것을 말하며 제본에서는 아름다운 끈을 등에 붙여서 책갈피에 끼우게 돼 있다. 두꺼운 표지에 있어 앞면 심지와 뒷면 심지와의 사이 용지나 인쇄물을 맨 다음, 표지를 씌워 서적·장부·앨범 따위를 만드는 것. 서적 등에 넣는 서적명·저자명·발행소 따위의 문자. 제본과정에서 책자의 속장을 순서대로 포개는 것. 책의 속장이 흩어지지 않도록 매는 작업. 철사매기·실매기·풀매기 등 여러 방식이 있다. 실매기를 끝낸 속장의 등을 죄어서 잠재우는 것. 양장제본에서 속장의 등 상하 양단에 붙이는 천. 보통 다갈색이나 검정과 흰 실로 교직할 줄무늬 천을 쓴다.
	가쿠세 시오리	모-등 갈피끈갈피표	
	세이키 세이혼	등-두께 제본 제작	
	세모지 조아이	등-글자 접자-모음 장함 매기	
	도지		
	나라시 헤드밴	잠재우기 꽃천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은 단지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지금 우리의 출판 인쇄계가 바로 바벨탑우화처럼 서로 의사를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 한 출판인은 “그

래도 책이 나오는 걸 보면 신기하다”며 무릎을 친다. <이성수>

이 ‘견출(見出)’이다. 견출이라는 말은 사진식자 견본책을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미다시’라는 순수한 일본말이다.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목’이 되는데, 그 뜻도 모르고 견출명조니 견출고딕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 곱게 봐줘서 ‘제목으로 쓰이는 굵은 글씨체’로 해석하지만 뭘지 석연찮은 용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마무리 잘해”라는 말도 “시아게 잘해”라고 해야 의사가 통한다. 또 ‘표지바리’라는 말도 곤잘 쓰인다. ‘표지’는 우리식 발음이고 ‘바리’는 일본식 발음이다. 도비라를 도베라로, 조간을 조간으로, 시로쿠를 시로코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런 용어는 일본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말은 더더욱 아니다. 일본말이 잘못 구전되어 국적으로 불분명한 말로 변한 것이다. 더군다나 ‘헤드밴드’에서 유래한 ‘하또방’이라는 발음은 과연 어느 나라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조차 없다.

우리말 용어의 통일 등이 선결과제

그렇다면, 왜 일본식 용어들이 아직까지도 인쇄·출판계에 횡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나라 근대출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근대 출판은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다. 자연스럽게 일본의 용어도 그대로 쓰이게 됐고, 게다가 도제(徒弟)체제로 운영되던 업계의 영향으로 일제 때 이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선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어 용어가 구전되었다. 또 인쇄계에서는 일본용어를 쓰던 현장 실무자가 초기 인쇄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일본용어가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외에 인쇄연구소 김창욱 차장은 대부분의 인쇄기자재가 일본에서 수입됐다는 점과 정부의 국어순화에 대한 무관심이 인쇄출판계의 일본어 사용을 더욱 부채질했다고 지적한다. 정부에서도 기계의 부품이나 사용방법을 우리말로 순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김창욱 씨는 “새로운 기자재가 들어왔을 때 사용방법이 정착되기 전에 우리 용어를 만드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도영씨는 인쇄업계나 출판계의 사업주가 우리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지금까지 인쇄 출판용어를 순화해서 펴낸 책들이 여럿 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주가 사전을 각 부서별로 비치해 사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좋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찾고 개발해서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그 문제의 첫째는 용어의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고, 그 둘째는 일본어가 몰라나기 시작하면서 그 틈새를 영어나 독일어 등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어의 통일은 꽤나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점이다. 일본용어로 사시카에(오식된 활자나 복자를 교정의 지시대로 바꿔주는 것)를 바꿔놓기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갈아꽃이나 바로잡기, 빼박이, 정판이라고 해야 할지 마땅한 용어를 찾아야 한다. 또 헤드밴드를 꽃천이라고 해야 하는지, 꽃따나 머리띠라고 해야 하는지 마땅한 통일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용어의 통일은 비단 우리말을 쓰자는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혼란은 글자꼴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신명조라고 해도 아래 한글 신명조가 있고, 매킨토시에서 제공하는 신명조가 있다. 또 오토페이지나 문방사우에서 제공하는 신명조가 있다. 물론 이들 서체는 모두 신명조이지만 글자꼴은 천차만별이다. 또 글자꼴을 만드는 회사에서 별 특성도 없는 글자들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이 정도면 출판사에서 활자꼴을 지정해줄 때 글자꼴을 만든 회사의 이름까지 지정해주어야 할 판이다.

과거 일본어로 교육을 받았던 세대에 의해서 우리의 출판 인쇄용어가 일본말로 점철된 것처럼, 영어로 교육을 받은 지금의 세대들은 영어를 즐겨 사용한다. 인쇄용어에 대한 한 사전의 표제어를 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사전인가”라는 의구심이 절로 생긴다. 그 사전의 표제어는 영어 발음을 우리말로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도 적지 않다. 영어로 교육을 받은 디자이너와 일본어를 쓰고 있는 인쇄소 직원은 서로 각기 다른 말을 쓴다. 디자이너가 그래픽이션이라고 하면 인쇄업자는 어리벙벙해진다. 반대로 보카시라고 하면 디자이너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대충’ 알게 된다.